

# ‘공간별 소리’...작품, 모두의 울림이 되다



제15회 광주비엔날레 도슨트 추천 8選

제15회 광주비엔날레 ‘판소리, 모두의 울림’(Pansori, a soundscape of the 21st century)이 순항 중인 가운데, 관람객들과 매일 최접점에서 만나면서 작품의 다양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도슨트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제15회 광주비엔날레 도슨트들이 꼽은 추천 작품 8선을 소개한다.

### 1전시실: 부딪침 소리(Feedback Effect)



피터 부겐후트작 '맹인을 인도하는 맹인'

피터 부겐후트의 '맹인을 인도하는 맹인' 연작은 피터 브뤼헬 더 아우더의 작품에서 차용한 제목이다. 잘못된 지도자를 맹목적으로 따르는 사람들을 묘사한 브뤼헬의 그림처럼 부겐후트는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생각하는 인간의 욕심을 지적한다. 폐기물로 형성된 구조물에 두껍게 쌓인 먼지, 그 덩어리 안에서 조금씩 자신의 실체를 말하는 형질, 고무줄, 철, 나무, 플라스틱 등은 우리가 사물을 이해하는 방식을 뒤엎는다.

### 2전시실: 부딪침 소리(Feedback Effect)



노엘 W. 앤더슨작 '흑인 연가를 위한 반론'

노엘 W. 앤더슨은 사운드 설치와 함께 세 점의 테이프스트리 작업 '흑인 연가를 위한 반론'을 선보인다. 영화 '블루스 브라더스'에서 영감을 얻은 장면을 따라 테이프스트리를 제작하고, 영화에서 목사 역을 맡은 가수 제임스 브라운의 목소리에 판소리 북 리듬을 입혔다. 그의 작업에서 제임스 브라운의 목소리는 한국 서민들의 울분에서 비롯된 판소리와 겹쳐진다. 이는 가장

아래서 오는 일종의 투쟁을 연상케 한다.

제15회 광주비엔날레 커미션으로 제작된 케빈 비즐리의 신작 다섯 점은 20세기 초중반 도시로 정착한 미국의 많은 흑인 가족에 대한 기록이다. '현장 모듈' 시리즈는 면화를 문쳐 만든 대형 설치 조각이다. 그중 벽면 설치 작업 '현장 모듈 (신시사이저) I'과 '현장 모듈 (신시사이저) II'는 평범하고 보편적 소재인 '천'으로 노동의 흔적으로 살핀다. 농구 유니폼이나 스웨트팬츠, 드레스, 이발용 앞치마 일부를 찾아볼 수 있다. 이는 면화에 깃든 농업·농사·노동의 흔적을 살피게 하며 여기에 결부된 인종적인 유산은 은유적으로 드러낸다.

### 3전시실: 겹침 소리(Polyphonies)



해리스 피어스작 '원자가'

해리스 피어스의 작품 '원자가'는 작가 자신의 질병에서 비롯됐다. 뇌 스캔을 경험한 그는 뇌를 형상화한 실리콘 덩어리를 중심으로 이를 자극하는 기계적 관계를 통해 몸의 역기능을 탐구했다. 작품은 타악기 소리에 맞춰 반응한다. 기초가 된 소리는 MRI 스캔에서 나왔다. 직관적인 금속 프레임과 기계 구조 안에 있는 실리콘 덩어리가 반응하고 움직이는 소리는 심장 박동이나 호흡 등 신체 리듬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관람자는 말뚝이 떨어져 10개의 구조물이 만드는 군무를 감상할 수도 있고, 작품 사이를 거닐면서 세세한 움직임에 집중해 볼 수 있다.

### 4전시실: 처음 소리(Primordial Sou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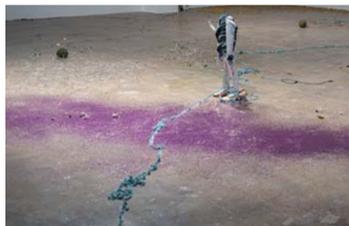
비양카 봉다작 '길고 어두운 헤엄'

소금물을 이용한 화학 반응, 여기에 일상적인 사물을 대체해 극적인 두 세계를 연결하는 비양카 봉다의 작품은 감각적인 경험을 선사한다.

'길고 어두운 헤엄'은 하얀 소금 사막과 그 위 이상한 액체로 채워진 연못으로 구성돼 있다. 이 불투명한 연못 속에는 식물이 자라난다. 연못 주변으로 눈을 둘러보면 색색의 형질 흔적으로 남은 시체 다섯 구를 발견할 수 있다. 신발을 벗고 올라온 이 단상에서 관람자들은 기이한 연못과 생명이 끝난 흔적의 병치를 만나며 현실 너머의 세계를 인식하게 된다.

주라 셔스트의 작업 '초심자 III: 가장 짧은 밤의 전야'는 자연과 소통하며 고대 전통을 수행하는 영상 속 인물들에 초점을 맞춘다. 8명의 벨라루스 난민으로 분한 인물들은 슬라브족 전통하지 축제 '쿠팔라'(Kupalala)를 재현한다. 불과 물을 곁에 두고 놀이를 이어가는 영상 속 10대들은 익숙한 의례를 치루는 듯 긴장감 넘친다. 영상과 함께 송진으로 가둔 나무 기둥과 전시장 바닥에 흩뿌려진 침엽수 잎에 눈길이며 본다. 이는 나무로 들어간 영혼이 나뭇잎을 모두 떨굴 때까지 그곳에 머문다는 믿음을 상징하며,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관객들을 초대한다.

### 5전시실: 처음 소리(Primordial Sound)



미미 박작 '발광하는 우리'

미미 박의 '발광하는 우리'는 작은 오브제로 연결된 소우주를 상징한다. 각각의 오브제는 서로 인접한 오브제를 통해 작동되고, 무수한 개별적 요소가 모인 별자리처럼 빛난다. 작품에 사용된 사물들은 작가의 작업 세계에서 중요한 키워드인 '놀이'를 통해 조합되고 이어진다. 가깝게 여겨지고 지워지기 쉬운 일상적 사물이 한데 모여 형성한 작은 세계는 호기심을 일으키고 작은 것들을 보듬는 시선을 갖게 한다.

하십 아흐메드의 작품 '주식 날씨III'은 글로벌 경제와 날씨를 연결해 어떤 사건으로 나타낸다. 축소된 콜로세움 같은 구조물에 올라서면 둘러싸인 곡선형 모니터에 주식 거래소의 데이터 속 숫자가 오르내리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이 숫자의 움직임은 바람에 펼쳐진 모래밭 위를 돌아다니는 날개의 속도에 영향을 주고, 이 장면은 다시 관람자 시선의 모니터에 재생된다. 또 다른 날씨 풍경이 화면에 비친다. 작가는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불확실한 주식이나 날씨 등에 매달리는 이유를 묻는다.

한편 광주비엔날레 도슨트는 별도 예약 없이 현장에서 선착순 20명 내외로 전시 해설을 들을 수 있다. /최명진 기자

## 마음의 색-DMZ

### 가운의 캔버스상책



나에게 색은 단순한 시각적 경험을 넘어 사회적, 정치적 의미를 담고 있으며, 이를 통해 감정과 정체성을 형성하는 '색의 이데올로기'로 작동한다. 예를 들어 빨간색은 혁명과 격동, 파란색은 안정과 보수를 상징하며 이는 사회적 맥락 속에서 다양한 의미를 지닌다. 또 이러한 색은 '심리적 알레르기'와도 연결될 수 있다. 특정 색이 불쾌감이나 심리적 불편을 줄 때, 우리는 마치 알레르기 반응처럼 그 색을 회피하려 한다. 정치적 맥락에서 색이 주는 거부감은 그 대표적인 예다.

DMZ 지도 작업에서 중요한 요소는 바로 '색'이다. 2024년 팬톤이 선정한 피치 퍼즈 (Peach Fuzz)는 부드럽고 평온한 느낌을 주지만, 그 이면에는 강요된 이데올로기의 기만성이 숨어 있다. 복숭아(Peach)와 솜털(Fuzz)을 합쳐 만든 이 칼라명은 나에게 다른 한편으로 복숭아 알레르기처럼 역설적으로 강요된 이데올로기를 다층적인 감정을 거쳐 치유의 색으로 표현된다. 이는 피치 퍼즈와 같은 색을 통해 이데올로기의 허구성을 비틀어 표현한 것이다.

통념적이거나 일반적인 색의 기준을 넘어, 현재의 순간을 새로운 시선으로



'마음산책-DMZ'

바라보자. 캔버스는 나에게 피부와 같고, 색의 혼합은 감정의 혼합이다. '마음산책' 연작에서 색을 덧입히고 지워내며 다층적 감정이 쌓인다. 이렇게 쌓인 색들이 바로 내가 명명한 '마음의 색'이다. 이는 하나의 색으로 규정할 수 없고, 다양한 색의 함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나는 이를 '거의 피치 퍼즈'(Almost Peach Fuzz)라 명명한다.

색을 통해 다양한 감정과 경험의 층위를 형상화하며, 색의 흐름을 통해 내면의 치유와 성찰의 과정을 담아보자. 평화는 손에 잡히지 않는 추상적 개념이지만, 2019년 GP 답사에서 깨달았다. 예술은 무엇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느끼는 지점을 찾아가는 여정이라는 것을. 과거의 경험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색을 찾아가는 작업, 그것이 지금 나의 회화이다. <대인동에서 화가강운>

## 국립광주박물관, 허백련 '사군자도' 공개

국립광주박물관이 의재 허백련 '사군자도'를 상설전시관 역사문화2실에서 새롭게 선보인다. 이번 교체전시를 통해 공개한 허백련의 '사군자도'(사진)는 지난 8월 박물관이 허백련 제자 정춘자 선생에게 기증 받은 작품이다.

지난해 9월 국립광주박물관에서 열린 특별전 '애중, 아끼고 사랑한 소중한 그림'에 출품한 것으로, 그 인연이 기증으로까지 이어지게 됐다. 네 폭의 족자로 구성된 '사군자도'는 허백련이 즐겨 그리던 화폭으로, 일흔이 넘는 노년기의 원숙한 사군자 화풍을 잘 보여주는 작품이다.

화면에 적힌 '의도인'이라는 호는 허백련이 60세 이후부터 쓰기 시작했는데, 자신이 가고 있



는 예인의 길에 대한 확신을 뜻한다.

/최명진 기자


www.e-dk.co.kr

##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가전이 한 곳에!



스탠드 공기청정살균기



벽걸이 공기청정살균기



제습기



레인지후드



전기쿡탑

공기청정살균기 | 공기청정기 | 공기순환기 | 제습기 | 레인지후드 | 전기쿡탑    판매 및 A/S 문의 1544-1154